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축 첫영성체와 세례식 ***

6/18일(토) 11명의 어린이가 처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영적 예물

-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님 영명축일 기도선물
- ①미사 및 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성체조배 ④희생
- ⑤주교님을 위한 기도
- ⑥제출기한 : 6월 19일(일) / 성전 입구 봉헌함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알 림

- 다음 주(6월 19일)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단식 2차 헌금(서울대교구)이 있습니다.
- 6월 22일(수) 11시 베타니아 노인정 월례 미사 있습니다.
- 6월 23일(목) 19시 40분 강당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 6월 25일(토) 임원소풍(원주 소금산) 있습니다.
- 6월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병자영성체(봉성체)가 재개되었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다음 주일(6/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6월 1일 ~ 6월 7일)

교 무 금	6,814,000원
주일헌금	4,240,200원
홍보주일 2차 헌금	1,682,500원
시설헌금	김명순20만원
감사헌금	정주민 5만원 이은용10만원 정진의15만원
	서만심 6만원 김숙자10만원 김순임10만원
	도현만10만원 익 명 5만원 김종란30만원
	이형석10만원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1Cu.	6/12(일), 12시	강 당
2Cu.	6/12(일), 13시30분	강 당
3Cu.	6/12(일), 12시	식 당
M.E.	6/12(일), 교중미사 후	6교실
울뜨레아	6/19(일), 11:40~13:00	강 당

◎ 교중미사 전례 봉사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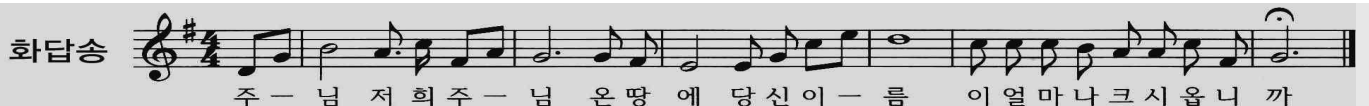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6/12	박혜선	조홍환 김진수	장익근 권태희
6/19	최경희	심재순 도현만	최웅조 정재경

◎ 교 육 / 강 좌

- 2022년도 서서울지역 남성 구역장 피정
- 일 시 : 6월 26일(일) 13:00~17:30
- 장 소 : 대방동 성당
- 교 육 비 : 1인 10,000원(본당 보조 50%)
- 접 수 : 6월 15일(수)까지 본당 사무실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6/12	최창열	박용환	손상민	이계명 박승환
6/19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최석준 오광운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169. 예를 들어 일부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경제적 접근에서는, 실업자와 비정규 임시직 노동자 그리고 현 구조에서는 쉽사리 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중 운동을 위한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 경제와 공동 생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공동 목적 달성에 소외된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촉발되어 넘치는 도덕적 에너지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통치 구조를 활성화하고, 대중 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참여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지구의 심토에서 성장한 이러한 연대의 경험이 한데 모여 더욱더 조화를 잘 이루어 계속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중 운동은 “변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 크고 작은 수많은 행위들이 시의 언어처럼 창의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활동 방식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운동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제안하고 촉진하고 해방시키는 ‘사회적 시인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결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정책도 가난한 이들의 정책도 아니고, 더욱이 국민들을 다시 통합하는 계획과도 거리가 먼, 사회 정책이라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중 운동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고, 몇몇 ‘사상가’들은 이를 구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찾아야만 합니다. 대중 운동 없는 “민주주의는 위축되고, 그저 형식적인 말이 됩니다. 미래를 건설하며 존엄을 수호하려고 날마다 투쟁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민주주의는 그 대표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해체될 것입니다.”

국제적 힘

170. 저는 다시 한번 다음의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7-2008년의 금융 위기는 윤리 원칙을 더 잘 존중하는 새로운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투기 금융 관행과 가상의 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수립할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낡은 기준들을 재검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마련된 실질적인 전략들은,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하고 통합을 더욱 느슨하게 만들며, 늘 무사히 피해갈 방법을 알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1. 저는 또한 다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정의의 고전적 의미를 인용하자면,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준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어 다른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의 품위와 권리를 무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주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권력(특히 정치, 경제, 기술, 국방 관련 권력)분배, 그리고 요구와 이익을 규제하는 사법 체계의 수립은 권력을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 가운데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거짓 권리와 동시에 많은 취약한 부분들, 곧 권력 오용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